

2. 좋았던 일을 뒤로하고 Leaving Good things

우리는 부분(section)에서 부분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부분들' 속에서 삶을 사는 것 같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사회로 나간다. 일터에서 햄버거를 뒤집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교사로 섬기는 등의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책의 한 장(Chapters)처럼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일기나 학술지의 장(Chapters)과 같이 본인의 자서전을 쓰고, 다른 누군가는 그들의 생각에다가 인생의 장들을 '쓰고', 기억을 하나의 부분으로 모아서 정리한다.

인생 한 장의 마지막에 이르러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할 때, 방금 끝마친 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은 종종 도움이 된다. 가장 최근의 장이 당신의 인생 전반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그 장이 마지막에 이르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적기이다. 목사님, 직장 동료 및 선배, 가족, 국민, 상사 등에 부합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신은 챕터리뷰(Chapter review)를 시작한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그 장(Chapter)을 끝내고, 인생의 다음 장을 기대하는 때이다.

사람들은 한 장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감정에 치우쳐 남겨진 장의 일들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한 장에서 그 다음 장으로 이어가며 결코 끝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발생한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은 감정의 혼란을 걷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전 장의 잔재를 이어가지 않게 된다. 돌아보는 것은 현지 국가와 문화를 상실한 슬픔을 달래는데 도움이 된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당신 삶에 변화가 있다. 현재 당신은 과도기에 있고, 발생한 변화에 당신이 적응함에 따라 이미 방향전환 과정(Reorientation process)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 주 또는 몇 달 전,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변화는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 변천과정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은 당신에게 일어난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Luke)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했듯이 사도바울(Paul)과 바나바(Barnabas)는 그들이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분명 이렇게 했을 것이다.

- 바울이 용기를 북돋는 기적의 메시지를 안디옥에서(비시디아) 전파했다(13:16-41).
-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13:42).
-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14:1).
- 말씀은 기적으로 확실히 되었다(14:1-3).
- 루스드라에서 행한 치유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다(14:8-12).

세 번째 사역을 마무리할 때 경험이 있는 선교사라 하더라도 바울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돌아보았다. 에베소 교회의 원로들과 얘기를 나눌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행20장).

- 겸손함으로 주를 섬김(19절)
- 유익한 것들을 설교함(20절)
- 대중에게 가르침(20절)
- 집에서 가르침(20절)
- 인종차별 하지 않음(21절)

- 성령에 복종함(22절)
-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25절)
-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를 선포함(27절)
- 사람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경고함(31절)
-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적인 사람들(32절)
- 그의 사역에 대가를 받지 않음(33절)
- 그의 필요를 충족시킴(34절)
- 그의 주변의 필요를 충족시킴(34절)
-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본을 보임(35절)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바울의 리스트를 보고 당신이 최근 사역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행한 일을 확인해 보라. 어느 누구도 전부를 행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아마 그 중 일부를 행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목록 끝의 빈 공간으로 가서 당신이 했던 선행을 더해 보라. 보고서를 읽는 시간을 갖고, 당신이 이번 기간 동안 행한 다른 선행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번 사역기간 동안 일어난 일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러했는가?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번 사역기간 중 당신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번 사역기간에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동료 선교사들이 당신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동료 선교사들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현지인들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만약 결혼 했다면, 가족에게 일어난 좋은 일은 무엇인가?

위의 것들이 당신의 남은 삶과 이전 삶의 장들과 어떻게 맞춰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들을 당신 삶의 다음 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두려워했을지라도 결국 선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현지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외로움, 좌절, 공포, 혼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한 감정들이 통찰력과 내면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당신이 슬퍼하며 남겨두고(잃고)온 좋은 것들은 무엇인가?

- 지난 3년 간 당신을 지지해 온 성경공부 모임?
- 개척교회 설립자, 신학 교수, 영어교사 등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
- 동료와 현지인들과의 유대감?
- 가정의 안정(가정이 된 무엇)?
- 당신의 역할에 대한 확신?

- ---
- ---
- ---
- ---
- ---
- ---

당신은 어떤 좋은 것들을 갖게 되었나?

- 출산, 결혼, 입양 등에 의한 새로운 가족?
-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과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자신감?
- 다른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기술?
- 세상에 대한 더 넓은 시각과 그것의 필요?

- ---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